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small>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small>	
		배포일자	2022년 7월 5일(화) 총 5매		
담당 부서 (기관)	항 공 과	담당자	• 항공산업팀장 이상욱 ☎440-4806 • 담당자 이윤성 ☎440-4808		
	항공우주 산학융합원	담당자	• 사무국장 김태욱 ☎858-8766 • 담당자 노영철 ☎858-035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美)LA시 도심이동연구소(UML)와
 도심항공교통(UAM) 국제연구 함께하기로
 - 도심항공교통 정착위한 운영환경 연구 공동 수행, 지역협력체 구축기로 -**

인천시가 미국 LA시 도심이동연구소와 도심항공교통의 운영환경 연구를 함께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025년 상용화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원장 유창경)은 미국 LA시의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인 도심이동연구소(Urban Movement Labs, 이하 UML)와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초기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협약”을 지난달 20일 LA시 소재 UML 사무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국내 항공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하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지원 연구개발사업 등 항공우주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ML은 LA시와 에이비스(AVIS), 리프트(Lyft), 버라이즌(Verizon), 웨이모(Waymo), LA 클린테크 인큐베이터(Los Angeles Cleantech Incubator) 등의 기업들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LA시 산하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기획, 기술개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오버에어, 아처 등의 기업과 함께 LA시 내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현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파트너십(Urban Air Mobility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UML의 국제연구개발은 선도적인 교통 모델을 갖춘 세계적 대도시인 LA와 인천시가 도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UAM)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상용화에 필수적인 기초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UML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에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UAM)이 초반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환경 연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연구개발 주요내용 >

- ① UAM 초기 운영환경 및 회랑 구축 시 요구되는 국지기상정보 기준 및 데이터 요소 연구
- ② 오픈소스 통신표준 통합 및 연동을 중심으로한 기상정보 송·수신방안 연구
- ③ 지방정부의 국지기상정보 활용방안 연구

이번에 시작된 국제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9일

부터 12일까지 4일간 인천시 주최로 인천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개최되는 ‘2022 K-UAM Confex’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 K-UAM Confex’는 “도시와 연결된(CITY CONNECTED)”라는 주제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UML등 항공우주 분야 국내외 기관들이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LA를 비롯한 국내·외 글로벌 도시와 허브공항, 대학, 연구기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분야 국내·외 기업 등이 참가한다. 컨퍼런스, 전시, K-UAM 비즈 살롱(K-UAM Biz Salon) 등의 행사에 참여해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와 LA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 간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도시, 공항,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협력체(Global Uam Regional Summit, 이하 GURS)”를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도시는 유럽 및 미주·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도시, 공항, 대학,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022 K-UAM Confex’에서 공식적으로 글로벌 도시 간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협력체(GURS)’ 구축을 선언하기로 했다.

나아가 두 도시 간 시장 상호 방문과 인천에 LA 및 ‘도심항공교통

(UAM) 지역 협력체(GURS)’ 사무실을 마련해 도시 간 협력체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광호 시 항공과장은 “이번 국제연구는 인천시가 도심항공교통(UAM) 실증도시·선도도시로 도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도시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인천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도심항공교통(UAM) 선도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지난해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내 공역분석 및 실증노선 설계를 진행했으며, 3차원(3D) 가상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올해에도 ‘도심항공교통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통신전파, 기상환경 등 실증환경 연구조사와 임시 버티포트 구축 등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실증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 관련사진 >

